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론 II- 통합적 모형

An Attempt for Constructing a New Paradigm of Home Economics

- Ecological Approach and An Integrative Model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전공

교수 유영주
강사 손정영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Division of Science for Human Life, Kyung-Hee Univ.

Professor : Yoo, Young-Ju

Lecturer : Sohn, Jung-Young

● 목 차 ●

- I. 서 론
- II. 정보사회--새로운 거시체계의 등장
- III. 정보사회와의 가정학의 통합적 모형

- I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sedays, Home Economic in Korea is faced with the danger of a discord caused by the outer pressure of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educational reformation.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zed society and the changes of families lived in the informatized society. The second was to assert to strengthen Home Economics in the informatized society. Ultimately we suggested an integrative and interdisciplinary model about Home Economics from the ecological and informative perspective. This model consist with three parts: Human development(Child studies, Gerontology, & Adolescent studies) and Family studies division(Family relation studies, Family resource management studies, & Consumer studies) Environmetal division(Clothing and Textiles, Food and Nutrition, & Housing) and HEIS(Home Economics Information System). This classification is correspond with the one Human-Behavioral Environment and Human-Constructed Environment of Ecological theory.

I. 서 론

가사과에서 가정과로, 가정과에서 가정대학으로,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발전·확대된 것은

분명 가정학 전공자로서는 큰 보람이며 궁지로 밟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학이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변화에 앞서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책이나 개혁

방향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발전·확대만이 우선책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학문적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못한 점은 한편 큰 손실이기도 하다. 사회변화 발전에 앞서 가정학자들 간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합의된 기반 위에 학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학문해체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97년 Thome은 실천과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정학이 그 학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 근래에 와서 정체위기(Identity Crisis)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고 일본의 松島는 가정학의 이중(二重)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이론적 연구를, 한편으로 실제적·실천적 연구를 해야하는 것이 외부에 비치는 학문적 영상(映像)이 모순되게 비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문수재, 1998 재인용). 본 연구자가 이미 전고(前稿)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I (199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적 시각을 강화하고, 실천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실제 생활영역에 기여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학의 관점을 심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급급하여 아직도 학문적 정체성 위에 통합적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시대전환의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밀려오는 디지털 시대가 위기로 다가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김기옥, 1999).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도전을 정면에서 민첩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사회가 가져올 생활변화의 최전선에서 지휘할 수 있는 생활과학으로서 혁명적 변신 없이는 가정학의 미래는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보사회의 특징 및 정보사회에서의 가정학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가정학의 새로운 통합적, 학제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보사회-새로운 거시체계의 등장

1. 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징

196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학자 Machiup이 지식 산업이 주를 이루는 '知識社會'를 예견한 이래,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은 경제, 기술, 정치, 사회, 문화 및 우리의 의식구조 등의 제 분야에까지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통신기술은 다양한 개개의漂流情報(information float)들을 체계화하고 정보전달시간을 더 한층 단축 시켜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정보사회의 주역이자 충아로 각광받게 되었다(정보사회학회, 1998).

이것은 사회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으며(오택섭 외 2인, 1984),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Toffler, 1993)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지배적 사회형태였던 산업사회가 발전하여 다른 구조를 지닌 사회, 즉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변할 것임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개념은 관련분야의 학자들간 합의된 내용없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정의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학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학자들은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기술,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의 변동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신윤식 등, 1992).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의 정보중심사회를 정보사회로 칭할 것인지 정보화사회로 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정보사회가 이전의 사회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가하는 정태적 논의와 함께 정보사회가 이전의 사회로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정보사회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동태적인 논의를 동시에 포함한다. 즉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라는 의미에서 '정보사회(informatized society)'라는 용어를, 동태적인 측면

에서는 정보화가 진행 중인 사회라는 의미의 '정보화 사회(a society being informatiz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최동수, 1998).

본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의 변화과정이나 원인보다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체계내의 가족 및 가정학의 성격을 논의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 본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이전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정태적 차원의 '정보사회'라는 용어의 사용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사회란 디지털 기기,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정보가 사회의 주요자본이 되어 정보의 창출과 유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식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이화여대, 1996).

'제 3의 물결'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보사회의 도래와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었던 Toffler(1993)는 농경사회의 출현을 '제 1의 물결'로,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제 2의 물결'로 그리고 전자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초산업적인 정보사회를 '제 3의 물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 및 가족의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러한 그의 예견은 오늘날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정보의 가치는 과거에 중시되던 에너지나 물질에 비해 기하급수적인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농업사회가 물질, 에너지, 정보의 순으로 가치를 두었다면 산업사회는 이 세가지 요소의 중요성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보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균형은 깨어지고 오히려 농경사회와는 반대로 정보가 가장 중요시되고 물질이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전석호, 1993). 덧붙여 정보사회가 과거의 산업사회와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다른 특징을 들 수 있다(최동수, 1998).

첫번째로 정보사회는 산업社会의 특징인 **量**의 사회가 아닌 **質**의 사회이다. 즉 노동의 양이 가치를 결정하던 시대에서 노동의 질, 기술의 질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다. 육체적인 노동이

개인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데 반해, 정신노동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므로 질적으로 우수한 정신노동을 투입하는 것이 평범한 노동을 다양 투입하는 것에 비해 비용효과면에서 훨씬 효율적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더욱이 **量**은 포화상태가 존재하지만 **質**은 포화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미래 정보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둘째로 정보사회에는 시·공간적, 인식적 차원의 모든 거리가 소멸된다. 즉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의 접촉이 가능해졌으며, 화상통신 등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로 접촉의 깊이와 질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현재라는 하나의 시간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명멸하는 현상이 되풀이 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인과관계의 선으로 연결되었다¹⁾)는 의식이 약화되는 탈역사성의 사회(post-historic society)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정보전달의 주요수단이었던 책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체인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으나 오늘날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주어지는 각종 정보들의 인식과정에서는 인식대상인 정보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주체인 인간이 소극적인 수용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인식대상과 인식주체 사이의 거리 또한 소멸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보사회는 지리적 경계는 물론 영역간 경계가 모호한 무경계사회(borderless society)이다. 즉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률, 과학 등 제 영역간의 지배원리, 목적의 공통성이 부각되고 중시됨으로써 정보에 대한 개인의 관점과 태도의 개방화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정학의 학문적인 전문화, 세분화 또는 통합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번째 특징은 고도의 네트워크화 현상이다. 즉 정보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질서유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각종 위계제도 대신 수평적 협력에 의해 움

1) 최동수(1998)는 이러한 시간적 거리소멸과 관련하여 농경사회를 **面**의 사회, 산업사회를 **線**의 사회, 정보사회를 **占**의 사회로 특징지우고 있다.

직이는 구조로 변화하는 다원화, 수평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김숙희(1990)도 과거의 고도기술(high technology)에서 인간기술(human technology)이 중시되는 횡적 사회, 다원화 사회의 도래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가정의 생활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농업 및 산업사회와는 다른 운영원리적 특성을 가지는 정보사회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가정 또한 그 영향권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즉 정보사회는 가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범국가적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면서 사람과 사람들간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계화, 개방화의 사회로 행하게끔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최성희, 1997).

정보사회의 이러한 변화 특성을 이외에도 오늘날, 또는 미래의 정보사회는 사회구조적인 측면, 보편적 가치관 측면, 그리고 실제의 가정생활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러한 변화속도를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이 또한 우리의 난제로 남아 있다.

2. 정보사회에서의 가정의 변화

최근 모든 가구에 화상통신시설을 갖추거나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된 사이버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²⁾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의 수준에 따라 건물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³⁾가 마련되는 등의 일련의 변화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 정보사회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과 분리되어 직장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정도로만 인식되던 정보화의 경향은 이같이 우리 생활의 저변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거시체계나 외체계의 수준을 넘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미시체계의 수준까지 깊숙히 파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이 산업사회의 주요 기능이었던 가족의 후식처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가 최종 도달하는 정보항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김은미, 1998)이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정보사회에서 가정의 영역은 새롭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집구조나 건축, 인테리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성역할의식, 그리고 시간, 에너지, 가사노동과 관련된 가정관리적 측면, 가족의 구조,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등에 걸친 전반적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하나의 체계가 이동능력을 증가시켜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다(Hawley, 1995)는 인간 생태학 이론의 관점이 또한 이러한 측면의 가능성을 입증해 준다.

실제로 정보사회에서 가족원들이 접하게 될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은 실로 다양하다. 다음의 <표 1>은 현재, 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될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유형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2) 삼성물산 주택개발은 서울 돈암동과 옥수동에 분양한 체계별 아파트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하나로통신과 업무 제휴를 통해 서울, 부산, 울산, 인천에서 분양하는 15000여 가구 아파트에 초고속 멀티 미디어 통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한신공영, 서울시 주택개발공사 또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입주민들은 원격수업, 원격진료, 재택근무, 전자홈쇼핑 등을 즐길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구내정보 통신설비를 갖춘 아파트 가격이 인근 아파트보다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건설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조선일보, 1999. 5. 31).

3)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0AH² 이상인 주거용 아파트 및 공동 주택단지와 업무용 건물들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 및 능력(용량)에 따라 건물에 1, 2, 3 및 준 3등급으로 구분되는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수는 체신청에서 받고 있다(www.mic.go.kr/intro3.htm/). 이에 따라 현재 현대 정보통신부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된 건물로는 삼성물산 주택개발이 건설한 2개 지역 아파트 단지와 두산타워, 한국통신 본사 및 전화국 등이 있다(조선일보, 1999. 5. 31).

<표 1>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미시적 추세	정보통신에 대한 요청	대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대효과
개성화의 전진과 가치관의 변화 /소비의 고도화, 다양화	개성존중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나 습관을 기록, 취향에 맞는 정보를 제공,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한 개인명세의 정보수집 · 영상통신을 사용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개성화 · 받는 측의 주체상이나 브라이벌시의 확립 · 키보드 대신 음성입력, 애매검색 기능으로 사용 용이
	필요한 시간, 장소에서 정보의 수집, 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켓전화, 휴대용 영상전화에 의한 장소극복 커뮤니케이션 · 시간지정통신, 시간극복 커뮤니케이션
	감성에 호소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면 3차원 영상을 사용, 가정극장 오락연출 · 영상통신 사용, 원격현장감 환경실현, 게임, 스포츠의 시뮬레이션 · 고령자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의 창출 · 다면영상으로 화면선택의 폭이 다원적으로 증가
교육의 고도화 다양화	풍부한 여가, 취미나 평생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도서관, 전자미술관 등 학습취미서비스 · 포켓전화, 휴대용 영상전화 등 다양한 미디어 발달로 레저, 교통정보수집으로 야외생활 기동성 향상 · 문장통신, 전자우편과 영상통신을 이용한 취미와 학습강좌 · 검색정보가 애매해도 키보드를 이용하여 몇 단어만으로 지정하는 애매 검색, 기호나 버릇, 기억, 취향과 개인별 필요에 맞춘 정보제공 · 통신에 의한 개인별 학습환경제공
고령자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편안한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컨트롤 사용으로 외출시 가정안전 · 어린이나 정신박약노인에게 IC 카드나 포켓전화휴대 · 단독가구 노인이 영상통신 사용으로 고독감 해소 · 원격감시, 원격검진에 의한 고령자나 환자의 간호
여성의 사회진출	가사의 경감으로 인한 자유시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여성을 위한 문장통신으로 매물정보, 요리정보, 가사의 경감 · 영상통신을 통한 텔레쇼핑에 의한 가사의 효율화 · 외출시 흡 오토메이션으로 시간절약

자료: 최동수(1998), 정보사회론, 서울: 법문사

번지는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가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노동이나 취업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정이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다.

정보사회가 가족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서 표에서 소개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은 가족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개인별 IC card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의 개인화는 개인행동의 자립성 및 능동성을 보장해 주며, 정보전달을 위한 거리와 장

소의 제한을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정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여성의 활동영역이 증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부작용 또한 예측된다. 먼저 정보소유의 측면에서 정보통신의 개인화에 따라 강제적이고 균질적인 정보공유에서 수신자 위주의 선택적, 불균질인 소유로 바뀜으로써 정보소유 수준에 있어 개인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으로써 생기는 정보의 폐소공포증을 갖게 되거나 특정 조직내에 정보 장벽이 발생함으로써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거나(최동수, 1998), 기술혁신의 속

〈표 2〉 정보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족생활의 변화	간접적 변화
주체적 행동선택	능동적 행동/과도한 기계의존	생활양식변화
탈시간화		성역할의식변화
탈거리화	가사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증가
노동경감		여성취업증가
네트워크 의존	외부와의 상호작용유지	가족의 확대
개별화	가족결속력약화/세대간정보격차	가족의식/관계변화

자료: 김은미(1998). 정보사회와 생활문화. 황상재편.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서울: 법문사.

도의 고속통신수단의 등장에 따라 생활감각을 상실하는 스피드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생활이나 인간관계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테크노 스트레스나 지나친 임여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력증 등을 또한 예상할 수 있다(최병일, 1983). 그리고 상품정보물이 대량 출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문화체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사회의 문화적 공통의식이 회복해지는 문제 또한 예상된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문화적 공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계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정의 생활문화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교육내용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아동 개인별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실시해야 하는 교육적 자질 측면의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가정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기준의 사회규범과 여성의 새로운 행동양식간의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거나 점차 증가하는 정서적 지지기능, 휴식기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각종 통신서비스를 선택, 신청, 보완하는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관리업무가 주로 여성에게 부가됨으로써 여성은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정보사회학회, 1998).

이상으로 정보社会의 제 특성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이를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가정생활의 변화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변화로 요약된다.

정보사회에서 가정이 직면하게 되는 간접적 영향은 바로 노동구조와 취업구조의 측면에서 비롯된다. 즉 정보社会의 구체적 변화 중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정과 일터의 융합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마트 하우스(smart house), 스마트 홈(smart home), 인텔리전트 홈(intelligent home),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컴퓨터 홈(computer home) 등의 용어로 불리는 고도화된 전자주택의 등장으로 직장과 가정의 구별이 없어지는 재택근무제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재택근무는 Toffler(1993)가 '제 3의 물결'에서 전자주택을 언급한 아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지금 현재도 가정과 일터의 완전한 융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가정과 일터의 분리가 산업사회만큼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재택근무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미국의 AT & T사 관계자는 2000년까지 미국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실제 유럽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6%가 재택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집에서 개인용컴퓨터로 일하는 재택근무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성혜, 1997).

이와 같은 가정의 일터의 융합가능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 시간과 노동형태를 변화시키며,

〈표 3〉 정보사회의 가사노동의 내용 및 노동시간의 변화

	줄어들 일	늘어날 일
정규적인 일	은행업무/각종결제	
비정규적인 일	관공서 민원업무 재산증식활동 우편물관리/보관 교육/육아정보수집	기기사용/운용방법 학습 금융거래 생활정보수집/분석/정리
일상적인 일	장보기 조리/설것이/세탁/청소 가족간의 대화 친지방문 자녀동학시 동반	사이버쇼핑 가전제품의 프로그램 링 가족원간 정보교환 통신을 이용한 자녀교육 컴퓨터가계부작성

자료: 공선진·강선미(1996), 정보사회의 여성의 생활세계, 포럼 21, 한백연구재단.

궁극적으로는 성별분업의 변화, 가사노동의 개념변화, 그리고 가족기능의 변화 등을 유발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먼저 많은 시간을 부부 또는 가족원이 가정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쇼핑⁴⁾의 등장으로 구매를 둘러싼 가사노동분담 방식이나 세대간의 분업, 소비주체의 다양화 등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할당되던 가사노동분담에서 탈피하여 성별분업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가사노동담당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수행되던 기존의 가사노동의 성격 및 우선 순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성진·강선미(1996)에 따르면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은행업무나 쇼핑시간 등에 소요되는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자녀교육, 각종 생활정보수집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정리, 쇼핑 등에 쓰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의 내용 및 시간의 변화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정과 일터의 융합, 즉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마지막 중요한 변화는 바로 가족기능의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나 가족원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원들에 대한 여성들의 정서적 지지기능과 휴식기능이 보다 요구되고 더불어 자녀에 대한 교육기능이 학교에서 다시 가정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가정학교(home school)'를 단적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원 보다는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가족원의 개인화, 고립화,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결속의 약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보기기를 통한 가족원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활동으로 가족결속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전보다 가정내에서 가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정의 정서적 기능의 강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reenberg는 가정은 변화의 풍랑속에서 인간이 안주하도록 하는 '휴대용 뿌리'의 역할을 하여 주변 환경이 더욱 일시성을 띠고 새로운 요소가 많아 질수록 가정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Toffler, 1993).

4) 사이버 쇼핑(cyber shopping)은 홈쇼핑의 한 형태로써 전화선을 이용해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을 말하며 가사쇼핑 혹은 온라인 쇼핑이라고도 한다. 전문용어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이라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보사회의 서막에 있는 현대 가족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보다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구조나 조건에 의해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친밀감의 질이 변하고 가족의 기능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러한 측면을 선불리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는 산업사회의 등장에 따라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변화만큼이나 광범위할 것임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관련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지해야 할 점은 통합과학이라는 가정학이 지니는 특수성이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동과 같은 현 사회가 당면한 많은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이기열, 1986).

III. 정보사회의 가정학의 학제적 모형

1. 정보사회에서의 가정학 강화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의 가정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전고(前稿) I에서 논의된 대로 첫째는 연구 영역의 세분화 및 전문화와 통합적 시각이 약하다는 문제, 둘째 실천과학으로서의 위상이 약하다는 문제, 셋째 가정학 연구가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요약된다.

따라서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시한 보다 적극적, 실천적인 관점과 학문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청소년비행, 이혼, 노인문제 등의 가족문제들이 파생된 가운데, 우리의 가정학은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왔다(윤희경 외 4인, 1975)는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게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가정철학과 가정문화의 모형이 가정학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가정학적 보수성을 떨쳐 버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가족유형에 적용될 수 있

는 학문적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정학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학문적 특수성과 학문발생당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왔으나, 가정학 내에서의 주요한 이론들로써 가장 일반적인 합의를 얻어낸 것은 인간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장명숙, 1988).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정학은 인간생태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그 환경과 가정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정학의 연구방향 또한 의식주 생활의 과학화라는 초기 목적에서 벗어나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가정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유영주 외 16인, 1997).

그리하여 최근의 가정학의 여러 정의들은 그 내용속에 인간,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며(이은애·강혜원, 1983), 일부에서 이 이론이 체계이론과의 차별성이 없고 개념의 입증이 모호하다는 등을 지적하면서 이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태학 이론은 현재 가족 현상을 포괄적, 전체론적, 또는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가정학적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유영주, 1993, 1996), 가족현상을 '두루 설명할 수 있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윤종희, 1991). 그리고 분야별로 생태학적 접근을 취하면서 독특한 문화배경의 이해를 통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조복희, 1980)과 더불어 최근 들어 이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가정학 제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거대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가족으로 하여금 변화된 환경에 대한 내·외적인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적응과정은 가정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도 예외적일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맞

추어 가정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과정의 기초가 되는 학제적 측면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질 이러한 학제적 관점의 논의는 기존의 인간생태학의 틀안에서 논의될 것이며, 역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 추상성과 모호성, 그리고 현실성의 부족 등으로 일부에서 비판받고 있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보다 구체적, 실용적인 차원으로 심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

최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사회에 학부제가 확산되면서 각 학문분야마다 학과 및 전공계열을 통합 또는 분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재정비작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제들에 부딪쳐 왔다.

가정학도 예외 없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며, 그 결과 현재 각 대학별 가정학 관련 학과들의 명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뀜으로써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전공별 통합과정에서도 편의위주의 행정적인 발상으로 상호 학문적인 기반이 상이한 전공들과 동일한 학부에 묶이는 등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전공영역은 이 혼란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학과명은 물론 전공영역 또한 기존의 가정학적 내용이 아닌 특정분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정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중복된 학과나 연결성이 없는 학과가 생기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정학의 내용부족과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최이순, 1979). 그리하여 학과명이나 전공영역의 개설과목 등의 일관성, 유사성을 통해 과거 가정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전공별 공통성을 찾기는 더욱 더 어려운 설정이 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가정학이 해체 또는 와해될 수도 있다(이은혜·강혜원, 1983)는 부정적인 예측이 지나친 비판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정보사회라는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 특성과 그로 인한 가정 및 가족생활의 변화들은 가정의 기능과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가정학의 시대적 중요성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문제일 것이다. 즉 이 시점에서 학문으로서 가정학

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부각될수록 인간성상실, 비인간화, 개인화라는 그늘을 숨기고 있는 정보사회는 '생활의 질 향상', '가정복지의 향상'이라는 가정학의 궁극적인 기능과 목적을 더욱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가정학이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갖출 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산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적이고 합일화된 결론은 물론 심각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선 각 대학의 가정학 관련 학과들이 처하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전공학자들간 학제구성에 대한 학문적 견해가 우선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정학이 당면한 이러한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학이 독자적인 분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성장해야 하며 통합시키는 핵심 또는 초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은혜·강혜원, 1983). 그리고 격변하는 정보사회에 대처하는 새로운 가정학 전공을 위한 기초이론 및 기술의 보완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이기열, 1987).

2. 가정학의 새로운 학제적 모형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인간 또는 가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인간생태학적 접근은 그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생태학의 이론적 틀을 근간으로 우리 나라의 가정학 분야를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영역별 분리를 할 수 있는 근거로써 가정학의 학제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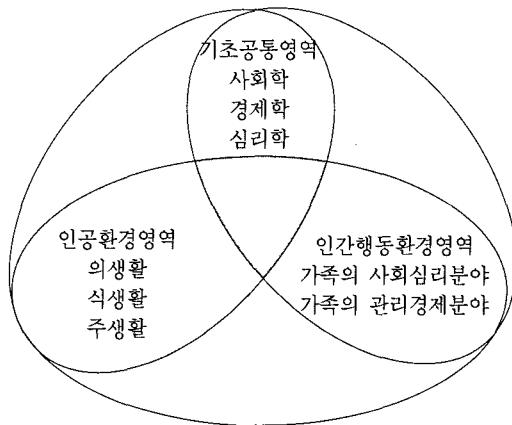
인간생태학 이론은 가정학분야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Bubolz, Eicher와 Sontage(1979)에 의해 제시된 Michigan 학파의 인간생태체계모델(가족생태학: Human ecosystem model), Bronfenbrenner(1976)에 의

해 제시된 Cornell 학파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델(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가정관리분야에서 Gross, Crandall과 Knoll(1973)이 제시한 모델, 그리고 Kilsdonk의 모델(1997, 재인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환경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Bubolz, Eicher와 Sontage(1979)는 개인을 중심으로 인간행동환경(Human behavioral environment), 인공환경(Human constructed environment), 그리고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으로 구분하였고, Bronfenbrenner(1976)는 개인을 중심으로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Gross, Crandall과 Knoll(1973)은 가족을 중심으로 가구환경(household environment), 근접환경(near environment), 그리고 광역환경(larger, environment)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모델의 중심에 위치한 '가족'을 사회·심리적환경과 경제·관리적 환경으로 다시 세분화하고 의생활환경, 주생활환경, 식생활환경을 주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가구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Kilsdonk의 또한 환경을 인적(사회행동적)환경, 인공적 환경, 그리고 자연(비인적)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모델 중에서 Bubolz, Eicher와 Sontage의 모델과 Kilsdonk의 모델은 거의 일치하고, Gross, Crandall과 Knoll이 사회·심리적환경과 경제·관리적 환경으로 구분한 가족단위는 Bubolz, Eicher와 Sontage의 모델과 Kilsdonk의 모델의 인간행동환경, 또는 인적(사회행동적 환경)과 유사하고 가족생활의 주요환경이라고 지적한 의식주 환경은 인공(적)환경의 주요영역에 해당된다(이후부터는 편의상 Bubolz, Eicher와 Sontage의 모델에서 사용한 환경분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가정학의 학제의 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중 자연환경 및 의식주를 제외한 인공환경은 타전공영역에서 다루어질 부분이므로 가정학 학제구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적 환경과 인공환경 중 일상과 직결되는 의·식·주환경이 본 학제구성의 주요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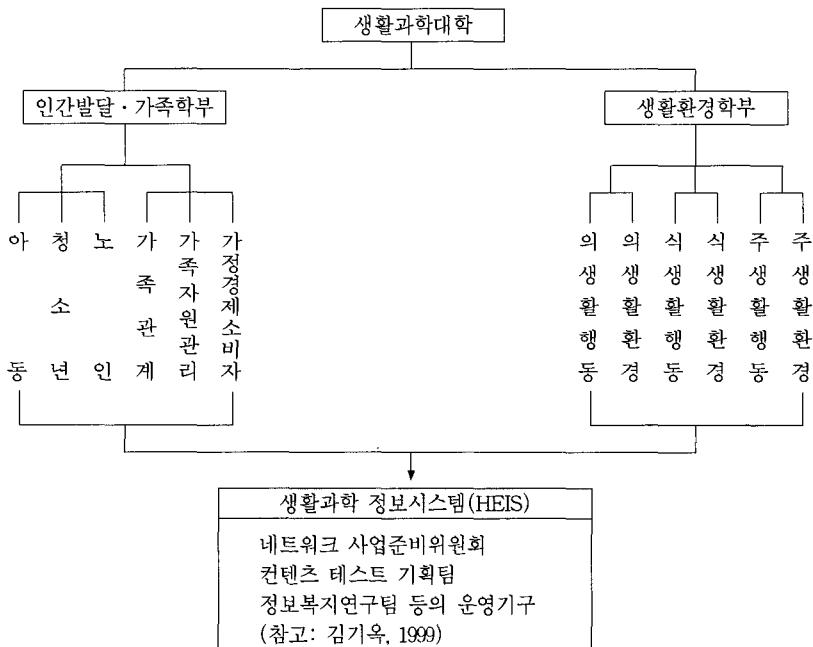
<그림 1>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가정학의 영역

위가 되며 응용과학, 총체적 학문이라는 가정학의 특성상 여기에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관련학문의 지식이 기초영역으로 덧붙여 질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을 기초공통영역으로 하고 인간발달이나 가족 및 가정관리적 특성을 인간행동환경으로, 그리고 의·식·주 환경을 인공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준과 정보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각 대학의 전공 또는 학과들을 고려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통합적 모형이 마련되었다.

이 모형은, 최근(1992년) 기존의 가정학부에서 생활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오차노미즈(お茶の水を)대학이 생활과학부를 다시 생활환경학(Division of Human Science and Technology)과 인간생활학과(Division of Human Life Studies)로 구분하고, 생활환경학과 안에 주생활 중심의 생활공학강좌⁵⁾, 식생활 중심의 식물공학강좌, 이 둘의 기초를 위한 인간과학강좌를 두었고, 인간생활학과 안에 인간발달을 다루는 발달임상학강좌, 가족, 여성, 노인, 소비자 문제 등을 다루는 생활사회과학강좌, 그리고 생활문화의 역사와 현대를 고찰하는 생활문화강좌로 전공을 분

5) 이 대학의 경우 학과는 우리의 학부의 개념이 강하고 강좌는 세부 전공, 또는 학과의 성격이 강하며, 각 강좌 별 입학 인원이 14-30명 선으로 정해져 있다.



<그림 2> 가정학의 새로운 통합적 모형

류한 경우(お茶の水を 대학요람, 1996)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생활과학부안에 인간환경학과와 생활환경학과를 둔 나라(奈良)여자대학의 학제구성과 일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는 생활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학과 전공설정이라는 이 대학들의 목표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제시한 모형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개설된 기존학과를 분류하는 성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의 두 대학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의생활을 생활과학에서 제외시킨 오차노미즈(お茶の水を)대학이나 의식주분야를 인간환경학과와 생활환경학과로 따로 분리시킨 나라(奈良)여자대학과 달리, 우리 나라의 가정학이 의·식·주생활 분야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특이성을 고려하여 이 세가지 영역을 생활환경학부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오차노미즈(お茶の水を)대학에서는 가족, 노인, 소비자 영역을 인간생활학과

내의 생활사회과학강좌로 통합하여 다루고 있고 나라(奈良)여자대학에서는 인간발달이나 가족, 노인분야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본 모형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모형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위해 우리 나라 가정학 관련 학과들의 현실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특정전공 영역안에서 이론분야와 응용분야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며, 정보사회에 필요한 정보관련 내용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각 전공별, 각 대학별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가정학의 통합적 모형을 국내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 대학내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전공분야를 학과 또는 전공으로 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유영

주, 1995; 유영주·이정연, 1994; 최혜선·김민자·조길수, 1993)이 제안하듯이 모든 대학이 모든 전공 영역에 같은 비중을 두어 추구하기 보다는 어느 특정분야에 역점을 둘으로써 대학별 특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학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위해 이러한 역할분담이 오히려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별 역할분담 또는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현재의 가정학의 영역이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 제시된 상황에서의 특성화와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황에서의 특성화는 향후 몇 십년이 지난 뒤 가정학이 가질 위상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인간발달·가족학부와 생활환경학부의 각 전공에서 축적된 지식들은 생활과학 정보시스템(HEIS: Home Economic Information System)으로 통합되어 일반 가정의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 가정학회가 이 시스템운영의 주체가 되고 하위 조직으로 네트워크사업준비위원회, 컨텐츠 테스트(contents test) 기획팀, 그리고 정보복지연구팀과 같은 운영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수요자요, 사용자인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상업주의의 논리에서 제외된 가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결시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과학 전공자와 전자매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사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정보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과학 정보상품의 품질테스트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생활의 제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생활과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보 테스트를 하는 역할은 컨텐츠 테스트(contents test) 기획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복지연구팀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보격차(information gap)를 줄이는 활동을 꾀하고, 정보빈자(information

poor)와 같은 정보사회의 장애인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틈새시장에서 생활과학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김기옥, 1999).

이상에서 제시한 가정학의 학제적 모형을 통해, 첫째, 학부제로 인해 각 대학마다 단과대학이나 학부의 명칭들이 혼재하고 있고 10여개 이상의 대학들이 '생활과학'이라는 단과대학명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학의 전체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학 관련 학문분야 및 관련학과, 관련 전공분야의 명칭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본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명칭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정학의 통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혜원, 1986). 둘째로 향후 가정학 분야에서 학과 개설이나 분과를 할 때, 분야별 전문화나 세분화, 통합화를 추진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셋째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학제적 모형을 통해 관련된 학과 및 학부의 명칭이나 학과개설 및 분과시의 행정적 측면, 그리고 학과목 개정 등의 실무적 측면의 유용성이 나타남으로써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정학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굳건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본 모형에서 제시된 생활과학 정보시스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용과학이라는 가정학의 기본적 성격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생활의 질 향상, 가정복지의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가정학에서 생활과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학자들간에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가정대학이 가정과학대학으로 개칭한 이화여대, 생활문화대학의 건국대, 가정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남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활과학으로 개칭을 하였으므로 생활과학으로 통일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큰 혼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와 같이 정보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정학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의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닉칠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는 가정학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학문이 될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명한 일이다. 그간에 연구했던 이론적 기초, 실천적 과제위에 생활과학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생활과학의 정보화를 끊임없이 디지털화, cyber화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옥(1996)은 제 52차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급격히 몰아닥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생활과학이 꼭 선도하여 지켜 나가야 할 당면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가정의 정보화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화시키고, 상업주의의 논리에서 제외된 가치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결시켜 누구나 손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경쟁에서 생활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살려 정보의 통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contents test 기획팀의 결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폭발되는 정보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복지 연구팀도 구성해야 할 것이고, 통합적 시각을 갖춘 특성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생활과학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세부 전공분야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독보적 분야이다. 세부 전공분야의 심화된 발전과 동시에 분야간 협력과 융합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생활과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적인 조정과 개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생활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세부 전공의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시급히 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는 생활과학의 정보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생활과학의 정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필요불가결한 학문분야가 될 것임

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 1) 강해원(1986).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18(2), 57-62.
- 2) 공선진·강선미(1996). 정보사회의 여성의 생활 세계, 포럼 21, 한백연구재단.
- 3) 김기옥(1999). 정보사회와 생활과학: 도전과 기회, 대한가정학회 제 52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9-37.
- 4) 김숙희(1990).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학의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8(4), 1-6.
- 5) 김은미(1998). 정보사회와 생활문화, 황상재 편.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서울: 법문사.
- 6) 문수제(1998). 가정학의 본질과 한국 가정학, 가정학에서 인간생태학까지, 문수재퇴임기념논문집, 54-55.
- 7) 신윤식·이철수·박재천·서정훈(1992). 정보사회론, 서울 데이콤출판부.
- 8) 오택섭 외 2인(1984). 2000년대 정보사회를 대비한 미디어 정책과제 연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 9) 유영주(1993). 가정학에서의 가족연구 접근 방법, 가족학논집, 5, 189-200.
- 10) 유영주(1995). 가정학의 당면과제와 전망,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 11) 유영주·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1, 대한가정학회지, 34(3).
- 12) 유영주·이정연(1995). 가정학원론, 서울: 신팍출판사.
- 13) 유영주 외 16인(1998).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 효일출판사.
- 14) 유희경·박일화·이정수·이병립·김숙희(1975). 가정학의 검토와 미래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2), 1-50.
- 15) 윤종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 접근, 서울: 교문사, 197-226.
- 16) 이기열(1986). Social and affective dimensions in home economics-가정학의 중요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1), 139-149.
 - 17) 이기열(1987).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5(2), 155-160.
 - 18) 이은혜·강혜원(1983). 가정학교과정의 내용선정 및 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21(3).
 - 19) 이정연(1994). 가정학의 메타이론: 인간생태학적 접근의 타당성, 대한가정학회지 32(3), 1-10.
 - 20) 이화여대 교육공학과(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
 - 21) 장명숙(1988). 가정학원론, 서울: 교문사.
 - 22) 전석호(1993). 정보사회론-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 23) 정보사회학회(1998). 정보社会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나남.
 - 24) 정보통신부 홈페이지(1999). www.mic.go.kr/intro3.htm.
 - 25) 조복희(1980). 아동·가족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 대한가정학회 제 34차 학술대회 자료집, 161-164.
 - 26) 조선일보(1999). 이젠 아파트도 사이버 시대로, 1999. 5. 31일자 17면.
 - 27) 조성혜(1997). '재택근무와 근로문화', 한국사회와 정부문화, 한국정보문화센터.
 - 28) 최병일(1984). 정보사회론, 서울: 도서출판 나라.
 - 29) 최성희, 정보사회와 아동교육과 가족, 가족학논집, 9, 129-143.
 - 30) 최이순. 대학교육에 있어 가정학의 위치, 대한가정학회지, 17(4), 131-136.
 - 31) Bronfenbrenner, U., 이영 역(1979),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32) Bubolz, M. M., Eicher, J. & Sontag, S.(1979), The Human Ecosystem: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21-24.
 - 33) Gross, I. H., Cradall, E. W., & Knoll, M. M.(1973),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N. J.: Prentice-hall, INC.
 - 34) Hawley 저, 홍동식 외 2인 역(1995). 인간생태학-지역공동체 이론, 서울: 일지사.
 - 35) Taylor, R. S.(1979). Reminiscing about the futur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Library Journal*, 15, 1871-1875.
 - 36) Toffler, A.(1993). 미래혁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37) Toffler, A.(1993). 제 3의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38) お茶の水を 大學(1996). 오차노미츠(お茶の水を) 대학 안내.